

9월, 가을 태풍·벌초 안전사고 요주의

태풍 기상특보 발효 시

외출·침수 위험지역 접근 자제

예초기 작업 보호구 반드시 착용

광주시는 9월 중점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태풍과 함께 예초기 안전사고 등을 지정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태풍은 일반적으로 여름철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9월에도 평균 5.3개가 발생하고 1개 정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2019년 9월에는 총 6개의 태풍이 발생해 이 중 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 당시 광주도 농경지, 공공시설 등 2500만원의 재산피해와 2억2700만원의 복구비가 투입됐다.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TV·라디오·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폭우와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선 주변 하수구 등의 배수 장애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또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고, 하천변·저하차도

등 침수 위험지역 접근도 피해야 한다. 특히 가을 태풍은 수확을 앞둔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추석 명절 성묘를 위한 벌초작업 중 자주 발생하는 예초기 안전사고와 뱀물림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예초기 안전사고는 총 343건 발생으로, 이중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45건에 달한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병원, 소방서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소비자 상담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관련 조치하기 위해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감시 시스템이다.

주로 다치는 부위는 전국 통계기준으로 둔부·다리·발(61.5%), 팔·손(17.5%), 머리·얼굴(5.8%) 순이며, 피부·피하조직과 근육·뼈·인대손상(84.8%)이 대부분이다. 예초기 안전사고는 50~6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한 벌초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보호

구 또는 보호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보호장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예초기는 보호덮개를 장착하고, 작업 중 예초기 칼날에 이물질이 끼었을 경우 반드시 예초기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예초기 작업 중에는 돌이 튀거나 칼날이 이탈될 수 있으니 작업 반경 15m 이내에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이 시기에는 뱀 물림 인명사고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벌초할 때는 두꺼운 등산화와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뱀에 물렸을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높혀 안정시킨 뒤 움직이지 않게 하고 물린 부위는 심장보다 낮은 위치에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방법은 2차 감염과 중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신동하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매년 벌초작업과 관련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맞이 위해 안전수칙과 응급처치법을 사전에 꼭 숙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불나면 GS편의점에서 소화기 빌려드려요



광주소방-GS리테일 업무협약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과 GS리테일이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민 누구나 화재가 발생하면 가까운 GS25 편의점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소방안전본부는 타인 소유 화재 현장에서 사용한 소화기는 관할 소방서에서 무료로 교체해주는 정책에 따라, GS25 편의점에서 빌려 사용한 소화기도 관할 소방서에서 교체해준다.

이남수 광주시 방호예방과장은 "시민 누구나 GS25 편의점의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초기 진화를 할 수 있어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역구내 임대시설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상반기까지 1억2000만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했으며, 이번 연장을 통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 50%인 5000여만원을 추가 감면 지원한다.

또 전통시장 및 지역 업체와의 상생 마케팅, 광

주상생카드를 비롯한 지역 화폐 활성화 등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윤진보 사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나누는 마음으로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면서 "함께 위기를 이겨내는 광주정신으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이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 복지시설 모집

시농기센터, 28일~11월5일 운영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마음건강 프로젝트 '생생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관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청소년(만13-19세), 청장년(만20-60세), 중노년(만61세 이상) 사회복지시설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28일부터 11월5일까지 대상기관별로 ▲작물 씨앗을 찾고 직접 텃밭을 만드는 '소확행, 반려 텃밭 이야기' ▲오감으로 체험하는 허브식물 '나를 닮은 향기' ▲말린 허브·꽃을 이용

한 추억예작 만들기 '우행시, 추억 담기' 등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농업·도시농업-교육마당-교육안내)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nancmj9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치유농업은 농업 자원을 활용한 감각, 감성 체험으로 심리 건강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치유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치유농업 육성 및 맞춤형 모델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여

13~17일, 지역기업과 공동 전시관

광주시가 "13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안전산업 전문 전시회 '2021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공동주최로 열리며, 광주시는 지역기업과 함께 안전산업 육성정책 및 지역기업의 안전 우수 제품을 홍보한다.

박람회 참가 기업들은 온라인 전시는 물론 수출 상담회 및 대기업 구매상담회 등 각종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3년 연속 박람회에 참여하는 광주시는 안전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지역 내 안전산업 우수기업들을 모집·발굴하고 박람회 참여와 각종 홍보자료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산업박람회는 대표 홈페이지(online.k-safetyexpo.com)로 접속하면 시민 누구나 관람가능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시민 90%

자치경찰 시민 안전 도움

70% "자치경찰 잘 몰라"

광주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자치경찰제위원회가 12일 내놓은 '광주자치경찰 인식도 및 정책 수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0.2%가 '자치경찰제가 앞으로 안전한 광주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정책은 범죄예방 생활안전 업무 50.6%, 사회적 약자 보호 39.0%, 교통안전 8.4% 순이었다. 안전 위협요소로는 골목길 18.4%, 유흥가 12.8%, 공원 9.6% 등이었다.

시급히 근절해야 하는 범죄로는 43.0%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라고 답했으며, 필요한 활동으로는 42.9%가 피해자 보호·지원이라고 응답했다.

자치경찰제의 운영 방식 등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는 인지도 조사에는 모름이 70.3%에 달했다. 자치경찰제위원회는 지난 8월 광주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설문조사를 했다.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회장은 "조사 결과에 나타난 시민들의 높은 기대와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시책 개발에 집중하고 홍보와 향후 추진 내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청렴 캠페인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는 최근 공사 사옥 정문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펼쳤다.

추석 연휴 대비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광주시 13~22일 800여 업소 대상

광주시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13일부터 22일까지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활동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13일부터 17일까지는 관내 8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자 스스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홍보·계도활동을 한다.

연휴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악성 폐수 배출업체와 산업단지, 주변 하천 등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오염사고가 우려될 경우 특별단속을 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2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자치구 등과 연계한 사고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박재우 광주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장 자율점검 강화 등 환경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시민들도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오염 신고전화(국번없이 128)로 즉시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